

2/13/22

설교 제목: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출애굽기 34 장 1-35 절

두 번째 돌판(신 10:1-5)

- (출 34: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 (출 34:2)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 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 (출 34:3)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절관주** 출 19:12
- (출 34:4)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 산에 올라가니
- (출 34:5)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새
- (출 34:6)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 (출 34:7)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삼사 대까지 보응하리라 **절관주** 수 24:19
- (출 34:8)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 (출 34:9)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뺏뺏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다시 언약을 세우시다(출 23:14-19; 신 7:1-5; 16:1-17)

- (출 34:10)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네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 (출 34:11)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네
)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 (출 34:12)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 (출 34:13)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 상을
 찍을지어다
- (출 34:14)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니라
- (출 34:15)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 (출 34:16) 또 네가 그들의 딸들을 네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네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 (출 34:17)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 (출 34:18)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빕월 그 절기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네가 아빕월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 (출 34:19)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네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 (출 34:20)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 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 (출 34:21) ○너는 옛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쉼이니 밭 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쉼이며
- (출 34:22)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 (출 34:23)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절관주** 신 16:16
- (출 34:24)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세 번씩
 여호와 네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 (출 34:25)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절관주** 출 12:10
- (출 34:26) 네 토지 소산의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출 34:27)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출 34:28)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사십 일 사십 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시내 산에서 내려오다

(출 34:29)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음으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출 34:30)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출 34:31)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출 34:32)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출 34:33)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출 34:34)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출 34:35)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본장은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다시 증거판을 주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을 받아 산 기슭에 머물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왔을 때 그는 기가 막힌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저들의 신 하나님이라고 하며 그것을 숭배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격노하여 하나님이 주신 돌판을 던져 깨뜨려 버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파기를 의미합니다.

모세는 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께 매달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중보합니다.

모세의 중보를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지 않기로 뜻을 돌이키시고 이스라엘과 다시 새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이 다시 모세를 부르십니다.

처음과 달리 이번에는 돌판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지 않으시고 모세에게 준비해 오라고 하십니다.

(출 34: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출 34:2)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 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출 34:3)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출 34:4)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 산에 올라가니

모세가 여호와의 명대로 돌판 둘을 깎아 아침 일찍 시내 산에 올라갑니다.

모세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 주시기에 앞서 당신 자신을 가리켜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출 34:5)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새

(출 34:6)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출 34:7)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삼사 대까지 보응하리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이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죄하지는 아니하고 ~~~ 보응하리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자를 천 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자)의 발로이고 벌을 면죄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삼사 대까지 보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진실)의 발로입니다.

하나님이 하필 여기서 당신 자신에 대해 이렇게 계시하시는 것은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신들의 신이라고 하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행사가 하나님의 속성 곧 '인자와 진실' '사랑과 공의'대로 행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첫 돌판과 결부하여 언약서를 낭독하였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다고 서약했습니다.

(출 24:7)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서약 아래 언약이 세워졌던 것입니다.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겠다는 조건부 행위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불과 40 일만에 서약한 바로 그 자리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함으로써 이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어 구원을 얻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대변하는 것이 깨어진 돌판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언약을 세우십니다.

(출 34:10)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네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 (출 34:11)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네
)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 (출 34:12)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 (출 34:13)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 상을
 찍을지어다
- (출 34:14)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니라
- (출 34:15)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 (출 34:16) 또 네가 그들의 딸들을 네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네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 (출 34:17)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 (출 34:18)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빕월 그 절기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네가 아빕월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 (출 34:19)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네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 (출 34:20)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 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 (출 34:21) ○너는 옛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쉼이니 밭 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쉼이며
- (출 34:22)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 (출 34:23)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 (출 34:24)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세 번씩
 여호와 네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 (출 34:25)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 (출 34:26) 네 토지 소산의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출 34:27)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출 34:28)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사십 일 사십 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이번에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다 준행하겠다는 이스라엘 백성의 서약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첫 번째 돌판을 주실 때 처럼 “이를 행하면 너희가 살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번에 주시는 새 언약은 더 이상 행위 언약이 아니고 은혜 언약 곧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깨어진 돌판과 다시 만들어진 돌판에 기록된 내용이 동일할지라도 그 영광스러움은 완전히 다릅니다.

다시 세워진 언약에서는 처음 돌판 때 볼 수 없었던 영광스러운 빛이 있었습니다.

다시 세워진 언약을 받아 가지고 내려오는 모세의 얼굴에서는 광채가 발했습니다.

(출 34:29)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출 34:30)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출 34:31)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출 34:32)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느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출 34:33)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출 34:34)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출 34:35)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모세가 첫 번째 돌 판을 받아 하산할 당시 모세의 얼굴에는 이번과 같은 광채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광채를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라고 말합니다.

(고후 4:4)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모세는 이 광채를 수건으로 가리웠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복음의 광채(그리스도)는 있었습니다.

다만 수건으로 가려져 있었을 뿐입니다.

그 수건은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 벗어졌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이 그 수건을 벗지 못하고 있음을 사도 바울은 탄식했습니다.

(고후 3:14)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은 이 사건 후 본격적으로 성막을 만들게 됩니다.

성막 통해서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임마누엘 하실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얼굴에 발한 광채는 곧 없어졌습니다.

그림자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에게 나타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는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그날 주님 오시는 날 우리는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같이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고후 3:18)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